

한·중 FTA가 대구·경북 지역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The Impacts of Korea-China FTA on the Major Industries in Daegu-Gyeongbuk Region

여택동(Taek-Dong Yeo)

영남대학교 상경대학 국제통상학부 교수,
교신저자, E-Mail: tdyeo@yu.ac.kr

정군우(Gun Woo Jeong)

대구경북연구원 미래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
공동저자, E-mail: jgw@dgi.re.kr

목 차

- | | |
|----------------------------|------------|
| I. 서론 | V. 요약 및 결론 |
| II. 한·중 교역 현황과 특징 | 참고문헌 |
| III. 한·중 FTA의 전개 과정과 주요 내용 | Abstract |
| IV. 한중 FTA의 지역 주요 산업별 영향 | |

국문초록

2014년 11월 한·중 양국 정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실질적으로 타결하였다. 한·중 FTA에서 중국은 품목수 기준 90.7%(7,428개), 수입액 기준 85%(1,417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최장 20년 내에 철폐하기로 한 반면 한국은 20년 내에 품목수의 92.2%(1만 1,272개), 수입액의 91.2%(736억 달러)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한·중 FTA 타결로 우리나라는 미국, EU, 중국, 즉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함으로써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한·중 FTA의 파급 효과가 지역 및 산업간 다를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한·중 FTA가 '대구·경북'라는 특정 지역의 주요 핵심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구·경북 지역의 대중 교역 현황, 한·중간 관세율 비교, 지역 핵심산업의 무역특화지수, 그리고 한·중 FTA 협상결과를 분석함으로써 한·중 FTA가 대구·경북 지역의 주력 핵심 산업 - 섬유, 전자·전기, 기계 및 자동차, 철강·금속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주제어: 자유무역협정(FTA), 한·중 FTA, 대구·경북 지역, 지역산업, 무역특화지수

* 이 연구는 2012학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I. 서론

2014년 11월 10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양국 정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이 실질적으로 타결되었다고 공식 선언하였다. 양국은 협상 타결직전 개최된 제14차 협상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 시장 개방과 품목별 원산지기준(Product Specific Rule: PSR) 등 모든 핵심 쟁점에 대해 최종 합의를 도출하였다. 이로써 2005~6년 민간 공동연구와 2007~9년 산관학 공동연구를 거쳐 2012년 5월초 개시된 한·중 FTA 협상이 2년 6개월만에 실질적인 타결이라는 성과를 낳게 되었다.

한·중 FTA 타결로 우리나라의 경제영토는 73.2%로 확대되어 칠레(85.1%), 페루(78.0%)에 이어 세계 3위로 도약하게 되었으며, 우리나라 전체 교역에서 FTA 체결국과의 교역 비중도 62.4%(2013년 기준)로 제고되게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국, EU, 중국, 즉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함으로써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게 되었다. 또한 한·중 FTA를 통해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거대시장을 우리나라의 제2 내수시장으로 선점하게 되고, 특히 중국의 서비스시장 개방을 통해 우리 기업의 대중 진출 기회를 확보하고, 중국 자본의 국내 유치를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향후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잠재력을 끌어 올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FTA를 통해 양국간 인적·물적 교류의 확대가 심화됨으로써 한·중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더욱 공고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한·중 FTA는 한중일 FTA,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FTAAP(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 등 아시아-태평양 역내 경제협력 및 동북아 지역통합 움직임 속에서 우리나라가 핵심축(linchpin)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특히 한·중 FTA 타결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안보 리스크를 감소시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2015년 2월 25일 가서명 조인된 한·중 FTA에서 중국은 품목수 기준 90.7%(7,428개), 수입액 기준 85%(1,417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최장 20년 내에 철폐하기로 했다. 반면 한국은 20년 내에 품목수의 92.2%(1만 1,272개), 수입액의 91.2%(736억 달러)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제조업 중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은 대부분 양허 제외 또는 중·장기 관세 철폐로 지정돼 영향이 크지 않다. 중국측은 전기전자 부문에서 전기밥솥, 세탁기, 냉장고 등 중소형 생활가전과 의료기기, 가전 부품을 개방하고 철강 업종에서는 냉연강판, 스테인리스 열연강판과 후판 등을 개방기로 했다. 우리측은 전동기·변압기 등 주요 전동기기의 관세를 단계적

으로 철폐하기로 했고, 핸드백과 골프채 등 중국으로부터 수입액이 많은 생활용품에 대해 15~2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한편 농수산물 분야에서는 우리가 쌀을 비롯해 고추와 마늘같은 양념·채소류 등 주요 농산물과 오징어, 멸치, 갈치 등 20대 수산물품을 모두 양허대상에서 제외해 국내 농수산업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¹⁾

그러나 한·중 FTA에서 우리나라가 농수산물 보호에 치중하느라, 우리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조업 분야의 시장개방이나 향후 서비스업의 중국 진출 측면에서 그리 큰 성과가 없었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한·중 FTA에서의 전체 상품 양허 수준을 비교해도 우리가 밀린 협상이고, 포장만 그럴 듯한 속이 텅 빈 선물상자라는 부정적인 견해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FTA 발효와 동시에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이 한국은 전체의 49%지만 중국은 20.1%에 불과하고, 공산품의 경우 중국은 전체의 20.3%(1,366 품목)만 즉시 관세를 철폐한다. 10년내 관세를 철폐하는 공산품 품목도 우리가 전체의 90%(수입액 기준 79.9%), 중국은 71.7%(수입액 기준 66.4%)이라는 것이다. 중국이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 품목 중에는 전기·전자 품목이 많은데 이는 대부분 중국 현지 생산이 많고, WTO ITA(정보기술협정)으로 이미 무관세 혜택을 적용받는 제품이 상당수이다. 더욱이 우리 정부가 FTA 수혜 품목이라고 밝힌 전기밥솥,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진공청소기 등 생활가전 제품 대부분뿐만 아니라 수출 1위 품목인 LCD패널은 10년내 관세 철폐 품목에 묶여 있다. 그 결과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은 대중 수출의 0.8%, 수입의 5.3%에 불과한 농수산물 시장을 양보받고, 우리 수출의 99%를 차지하는 제조업을 내주었다고 평가하고 있다.²⁾

어쨌든 한·중 FTA가 가서명을 마쳤고, 향후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 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 한·중 FTA는 미국, EU와의 FTA에 비해 국내 이해집단간의 심각한 갈등 이슈가 많지 않아 비준 절차를 거쳐 조만간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이번 FTA 협정만으로 우리 경제에 경천동지할 영향을 줄 가능성도 크지 않을 것 같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대상국인 중국과의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과소평가할 것도 물론 아니다. 따라서 한·중 FTA가 한국 경제 전반과 지역 경제 및 산업에 미칠 영향을 연구해 보는 것은 의미있고 시의적절한 작업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한·중 FTA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한·중 FTA가 우리나라 무역이나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는 다음과 같다. 양평섭 외(2009) 및 최용민(2010)은 한·중 FTA 협상에서 가공무역이 중심인 한중간의 무역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김태년(2012)은 한·중 FTA가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고, 이상호·

1) 산업통상자원부, 2015, 『한·중 FTA 가서명 보도자료』, 2015, 2.25.

2) 이코노미스트, 2015, “한·중 FTA 득실 따져보니 - 한국에는 텅빈 선물상자 배달”, 2015년 3월 14일 기사.

김충실(2012)은 한·중 FTA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영귀(2012a, 2012b)는 한·중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CGE모형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2)은 한·중 FTA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집대성하고, 산업별 FTA의 영향을 분석, 정리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자동차, 전자, 기계 등은 수혜 업종, 섬유 및 생활용품 산업은 대표적인 피해 업종으로 구분하였다.

한·중 FTA의 특정 지역 또는 세부 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 역시 지자체 및 민간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정 지역에 한정하여 분석한 연구로 경기개발연구원(2007)은 AHP기법으로 20명의 전문가에게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김군수 외(2012) 역시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중 FTA의 영향을 분석하였지만, 설문조사가 아닌 수출입 데이터로 분석하였다. 정환우(2012)는 수출입 자료로 한·중 FTA가 우리나라 각 지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했는데, 대구·경북 지역은 긍정적 효과가 가장 낮은 것으로 예측했다.³⁾

우리나라의 특정 지역 또는 세부 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 역시 지자체 및 민간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정 지역에 한정하여 분석한 연구로 경기개발연구원(2007)은 AHP기법으로 20명의 전문가에게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김군수 외(2012) 역시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중 FTA의 영향을 분석하였지만, 설문조사가 아닌 수출입 데이터로 분석하였다. 정환우(2012)는 수출입 자료로 한·중 FTA가 우리나라 각 지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했는데, 대구·경북 지역은 긍정적 효과가 가장 낮은 것으로 예측했다.⁴⁾

한·중 FTA가 대구·경북 지역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일부 존재한다. 정균우(2012)는 한·중 FTA가 지역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을 한중간의 무역 현황과 경쟁력 분석을 통하여 연구하고 있는 반면, 유병규·임규채(2012)는 한·중 FTA가 경북 농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손수석(2013)은 경북지역의 대중 교역현황과 품목별 경쟁력, 한중간 관세율 비교, 협상의 진행결과를 분석하여 한·중 FTA로 인한 경북 지역의 수혜 산업과 피해 산업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여택동·최의현(2013)과 최의현·여택동(2013)은 한·중 FTA 협상이 타결되기 전인 2013년 각각 대구와 경북 지역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중 FTA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지방 정부와 상공회의소를 통해 한·중 FTA 협상단에 전달할 목적으로 대구 및 경북 산업계의 의견과 대응방안을 도출한 바 있다.

그런데 이상의 모든 연구는 한·중 FTA가 타결되기 전에 분석된 연구들이다. 한·중 FTA가 타결된 이후 한·중 FTA의 영향을 심도있게 분석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는데, 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4), GSNI 인스티튜드(2014), 부산발전연구원(2014) 등 연구기관의 정책자료 정

3) 여택동·최의현, 2013, 전계연구, pp. 58-9.

4) 여택동·최의현, 2013, 전계연구, pp. 58-9.

도가 전부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중 FTA의 효과가 지역 및 산업간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한·중 FTA가 ‘대구·경북’라는 특정 지역의 주요 핵심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한·중 교역 현황과 대구·경북 지역의 대중 교역 현황을 분석하고, 제3장에서는 한·중 FTA의 전개과정과 협상 결과를 요약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한·중 FTA가 대구·경북 지역의 주력 핵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지역의 대중 교역 현황, 한중간 관세율 비교 및 지역 핵심 산업의 무역특화지수, 그리고 한·중 FTA 협상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연구한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도출한다.

II. 한·중 교역 현황과 특징

1. 한·중 교역 현황과 특징

1992년 8월 한·중 양국간 공식적인 수교 이후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입과 무역 흑자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2014년 대중 수출액은 1,453.3억 달러로서 한국의 대세계 수출액의 25.4%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대중 수입액은 900.7억 달러로서 한국의 대세계 수입액의 17.1%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표 1 참조>). 2014년 기준으로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수입, 교역 대상국인 반면, 중국에 있어 한국은 홍콩 제외 시 수출대상국 3위, 수입대상국 2위로, 제3위의 교역대상국이다.

한국의 대중국 교역 패턴은 중간재와 가공무역 중심이며 중국은 세계의 최종재 조립가공 생산기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대중국 수출(수입)은 전 산업에서 교역을 목적으로 하는 가공무역이 2012년 기준 약 53%(42%)로 중국 내수 목적의 일반무역 비중 28.3%보다 크다. 특히, 전자·전기, 기계, 정보통신, 농수산업, 화학섬유, 피혁·모피, 신발 산업 등에서는 가공무역이 60% 이상인 반면 광업, 목재·가구, 석유화학, 의약품, 자동차, 기타운송기기 산업에서는 중국 내수 중심의 일반무역이 60% 이상이다.⁵⁾

5) 여택동·최의현, 2013, 전계연구, p. 60.

<표 1> 한·중 교역 추이(1992~2014)

(단위: 억 달러)

년도	구분	대중 수출액 (수출 증가율)	대중 수입액 (수입 증가율)	대중 무역수지	대중 교역액 (대중 교역비중)
1992		26.5 (164.7)	37.3 (8.3)	-10.8	63.8 (4.0)
2000		184.6 (34.9)	127.9 (44.3)	56.7	312.5 (9.4)
2005		619.2 (24.4)	386.5 (30.6)	232.7	1,005.7 (18.4)
2010		1,168.4 (34.8)	715.7 (31.9)	452.6	1,884.1 (21.1)
2011		1,342.0 (14.9)	864.3 (20.8)	477.8	2,206.3 (20.4)
2012		1,343.2 (0.1)	807.9 (-6.5)	535.3	2,251.1 (21.1)
2013		1,458.7 (8.6)	830.5 (2.8)	628.2	2,289.2 (21.3)
2014		1,453.3 (-0.4)	900.7 (8.5)	552.6	2,354.0 (21.4)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http://www.kita.net>), 2014

<표 2> 한국의 대중 수출·입 20대 품목 (2014년)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수 출			수 입		
	품 목	금액	비중	품 목	금액	비중
	총계	145,328	100	총계	90,072	100
1	전자부품(MTI 83)	48,315	33.25	전자부품(MTI 83)	15,246	16.93
2	석유화학제품(MTI 21)	22,079	15.20	산업용전자제품(MTI 81)	14,545	16.15
3	산업용전자제품(MTI 81)	17,977	12.37	철강제품(MTI 61)	12,013	13.34
4	수송기계(MTI 74)	9,115	6.28	섬유제품(MTI 44)	4,676	5.20
5	광물성연료(MTI 13)	7,080	4.88	정밀화학제품(MTI 22)	4,565	5.07
6	기초산업기계(MTI 71)	4,779	3.29	기초산업기계(MTI 71)	2,770	3.08
7	철강제품(MTI 61)	4,751	3.27	가정용전자제품(MTI 82)	2,733	3.04
8	정밀화학제품(MTI 22)	3,961	2.73	농산물(MTI 01)	2,682	2.98
9	중전기(MTI 84)	3,551	2.45	중전기(MTI 84)	2,615	2.91
10	산업기계(MTI 72)	2,749	1.90	수송기계(MTI 74)	2,225	2.48
11	플라스틱제품(MTI 31)	2,719	1.88	전선(MTI 85)	2,118	2.36

순위	수 출			수 입		
	품 목	금액	비중	품 목	금액	비중
	총계	145,328	100	총계	90,072	100
12	정밀기계(MTI 73)	2,544	1.76	요업제품(MTI 24)	2,051	2.28
13	비철금속제품(MTI 62)	2,442	1.69	신변잡화(MTI 51)	1,955	2.18
14	가정용전자제품(MTI 82)	1,855	1.28	비철금속제품(MTI 62)	1,807	2.01
15	기계요소공구및금형(MTI 75)	1,584	1.09	석유화학제품(MTI 21)	1,728	1.92
16	직물(MTI 43)	1,521	1.05	기계요소공구및금형(MTI 75)	1,512	1.68
17	기타기계류(MTI 79)	1,414	0.98	산업기계(MTI 72)	1,259	1.40
18	전선(MTI 85)	1,209	0.84	플라스틱제품(MTI 31)	1,153	1.29
19	기타화학공업제품(MTI 29)	695	0.48	수산물(MTI 04)	1,141	1.27
20	농산물(MTI 01)	645	0.45	비금속광물(MTI 12)	1,049	1.17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http://www.kita.net>), 2014

한·중 양국 간에 생산 분할에 근거한 수직적 분업구조는 심화된 반면 교역확대에 따른 시장 세분화 및 교역품목 증대 효과는 정체상태이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최대 수출 품목은 기술수준이 높은 전자부품(MTI 83), 석유화학제품(MTI 21), 산업용 전자제품(MTI 83), 수송기계(MTI 74) 등이고, 직물(MTI 43), 섬유제품(MTI 44), 가죽·모피(MTI 33), 제지원료·종이(MTI 25) 등 노동집약적 경공업 제품의 수출은 2000년대 초반 이후 위축되고 있다.

<표 2>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국의 대중 10대 수출 품목은 전자부품(MTI 83), 석유화학제품(MTI 21), 산업용 전자제품(MTI 81), 수송기계(MTI 74) 등으로서 대중 총수출의 85%를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중 수출 중 상위 3대 품목의 의존비중은 약 59%에 달하고 있고, 제조업 부품과 중간재 위주로 소수 품목에 집중되어 있다. 한국의 대중 20대 수출·입 품목 중 전자부품(MTI 83), 석유화학제품(MTI 21), 산업용 전자제품(MTI 81), 수송기계(MTI 74), 기초산업기계(MTI 71), 철강제품(MTI 61), 정밀화학제품(MTI 22) 등 총 15개 품목이 겹치는 것으로 보아 양국간 산업내무역(intra-industry trade: IIT)의 비중이 높은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실제로 양국간 산업내무역의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대중 20대 수입 품목에 4위 섬유제품(MTI 44), 8위 농산물(MTI 01), 19위 수산물(MTI 04)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한·중 교역의 핵심 특징 중의 하나이다.

2. 대구·경북의 대중 교역의 현황과 특징

2014년 대구의 대중 수출은 17억 26백만 달러로서 대구 총수출(78억 8백만 달러)의 22.1%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대중 수입은 15억 80백만 달러로서 대구 총수입(36억 81백만 달러)의 42.9% 비중을 차지하여 매우 높은 편이었다. 대구의 대중 수출 비중(22.1%)은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비중(25.3%)에 조금 못 미치나 대구의 대중 수입비중(42.9%)은 우리나라의 대중 수입비중(17.1%)보다 2.5배 이상 높다. 한편, 2014년 기준으로 대구의 대중 수출은 우리나라 대중 총수출의 1.2%, 대중 수입은 1.75%를 차지하여 비중이 높은 편은 아니었다.

〈표 3〉 대구·경북의 대중 수출·입 추이(2000~2014)

(단위: 백만 달러)

구분 년도	대구				경북			
	총수출	대중수출	총수입	대중수입	총수출	대중수출	총수입	대중수입
2000	2,849	267	1,395	260	15,653	1,970	12,162	946
2005	3,333	837	2,208	763	38,709	11,104	22,789	3,405
2010	8,193	1,293	3,076	1,056	44,937	10,244	19,295	2,284
2011	6,371	1,484	3,699	1,419	52,129	12,952	23,242	3,116
2012	6,984	1,517	3,782	1,390	52,109	14,160	19,742	2,913
2013	7,012	1,626	3,532	1,470	53,765	14,502	17,181	2,897
2014	7,808	1,726	3,681	1,580	51,490	14,391	16,057	2,830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편 경북의 대중 수출은 143억 91백만 달러로서 경북 총수출(514억 90백만 달러)의 27.9%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대중 수입은 28억 30백만 달러로서 경북 총수입(160억 57백만 달러)의 17.6%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북의 대중 수출 비중(27.95%)은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비중(25.3%)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인 반면 경북의 대중 수입비중(17.6%)은 우리나라의 대중 수입비중(17.1%)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한편, 2014년 기준 경북의 대중 수출은 우리나라 대중 총수출의 9.9%로 상당히 높은 수준인 반면 대중 수입은 3.14%를 차지하여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니다.

<표 4> 대구·경북의 대중 수출·입 10대 품목(2014년)

순위	대구		경북	
	수출 품목	수입 품목	수출 품목	수입 품목
1	수송기계(MTI 74)	정밀화학제품(MTI 22)	전자부품(MTI 83)	철강제품(MTI 61)
2	산업용전자제품(MTI 81)	전선(MTI 85)	산업용전자제품(MTI 81)	정밀화학제품(MTI 22)
3	기초산업기계(MTI 71)	직물(MTI 43)	철강제품(MTI 61)	전자부품(MTI 83)
4	기계요소공구 및 금형(MTI 75)	기계요소공구 및 금형(MTI 75)	중전기(MTI 84)	요업제품(MTI 24)
5	직물(MTI 43)	섬유사(MTI 42)	정밀화학제품(MTI 22)	산업용전자제품(MTI 81)
6	산업기계(MTI 72)	섬유제품(MTI 44)	비철금속제품(MTI 82)	비철금속광물(MTI 12)
7	전선(MTI 85)	수송기계(MTI 74)	기초산업기계(MTI 71)	비철금속제품(MTI 62)
8	가정용전자제품(MTI 82)	전자부품(MTI 83)	플라스틱제품(MTI 31)	농산물(MTI 01)
9	기타철강금속제품(MTI 69)	농산물(MTI 01)	석유화학제품(MTI 21)	전선(MTI 85)
10	기타기계류(MTI 79)	산업기계(MTI 72)	요업제품(MTI 24)	중전기(MTI 84)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http://www.kita.net>), 2014

2014년 기준 대구의 10대 대중 수출 품목은 수송기계(주로 자동차부품), 산업용전자제품, 기초산업기계, 기계요소공구및금형, 직물, 전선, 가정용전자제품 등의 순서인 반면 10대 수입 품목은 정밀화학제품, 전선, 직물, 기계요소공구및금형, 섬유사, 섬유제품, 수송기계, 전자부품 등의 순이다. 이는 대구의 주요 핵심산업이 섬유 및 직물, 전자기기 및 그 부품, 자동차부품, 기계금속산업 등이라는 점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한편 2014년 기준 경북의 10대 대중 수출 품목은 전자부품, 산업용전자제품, 철강제품, 중전기 등의 순서인 반면 10대 수입 품목은 철강제품, 정밀화학제품, 전자부품, 요업제품, 산업용전자제품, 비철금속제품 등의 순이다. 이 역시 경북의 주요 제조업이 포항의 철강, 구미 권역의 전자기기 및 그 부품 중심이라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III. 한·중 FTA의 전개 과정과 주요 내용

1. 한·중 FTA의 추진 경과

한·중 FTA는 <표 5>에서 보듯이 2004년 9월 ASEAN+3 경제장관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양국간 통상장관회담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양국은 2007~9년 3년동안 산학관 공

동연구를 수행하였으며, 2010년 5월 양국 정상회의에서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를 선언하면서 한·중 FTA 협상을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한·중 양국간에 FTA 공식협상은 2012년 5월 2일 개시되었고, 이후 FTA 협상이 1/2 단계로 총 14차례 개최되었다.

한·중 FTA 1단계 협상은 2013년 9월 제7차 협상에서 마무리되었는데, 양국은 상품, 서비스, 투자 등 분야의 모델리티(modality, 협상의 기본 지침과 원칙)를 도출하였으며, 품목군별 분류(일반·민감·초민감) 방식과 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의 자유화(관세철폐) 수준에 합의하였다. 2단계 협상에서는 이미 합의한 모델리티를 바탕으로 전면적인 상품 품목별 시장개방 수준과 양허세율에 관하여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서비스 및 투자의 자유화 방식과 지적재산권, 경쟁, 투명성, 전자상거래, 환경 및 경제협력 등 분야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마침내 2014년 11월 4~9일 제14차 협상에서 한·중 양국은 상품 및 서비스 시장 개방과 품목별 원산지기준(POR) 등 모든 핵심 쟁점에 대해 최종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11월 10일 양국 정상회담이 한·중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되었다고 공식 선언하였다. 그리고 2015년 2월 25일 한·중 정부는 FTA 협정에 대한 기술적 협의와 법률 검토 등의 작업을 거쳐 FTA협정에 가서명 조인하였다. 참고로 가서명은 양국의 통상 부처가 FTA 영문 협정문을 검토하고 문제가 없다고 서명하는 절차이다.

〈표 5〉 한·중 FTA의 추진 경과

일자	추진 내용
2004. 9	ASEAN+3 회의 계기 한·중 통상장관회담시 민간공동연구 개시
2005 ~ 2006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중심과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간 공동연구 개시
2006.11.17	한·중 통상장관회담에서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개시 합의
2007 ~ 2009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회의
2010. 5.28	양국 정상회의 시 통상장관간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관련 양해각서 서명
2010 ~ 2011	한·중 FTA 정부간 사전협의 회의
2012. 2.24	한·중 FTA 공청회
2012. 5. 2	한·중 FTA 협상개시 선언
2012. 5.14	한·중 FTA 제1차 협상 개최(베이징)
2012. 5 ~ 2014.11	한·중 FTA 협상 총 14차례 협상 개최
2014.11.10	양국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협상 실질적 타결 선언(베이징)
2015. 2.25	한·중 FTA 가서명

2. 한·중 FTA의 의의

2003년 7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양국간 FTA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래 10여 년이 지나서야 한·중 FTA가 실질적 타결을 이루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금번 한·중 FTA 타결을 계기로 세계 3대 경제권(미국, EU, 중국)과의 FTA 체결을 완성하고 FTA 허브국가로 도약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중국과의 FTA 체결을 통하여 중국 내 각종 무역장벽이 완화/철폐되고 우리 수출기업 및 현지 진출기업의 경영 애로사항이 해소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중국시장에서 대만, 동남아 국가들과의 가격경쟁력이 동등해지거나 앞서게 되었다. 또한 외국 글로벌 기업과 중국 기업들은 한국의 FTA 허브 기능을 활용하고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중국 기업 및 투자자의 국내시장 진입장벽이 더욱 낮아졌기 때문에 국내 산업의 상당한 피해도 우려된다.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상대국인 중국과의 FTA 협상 타결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한·중 FTA를 통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시장이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시장을 우리나라의 제2 내수시장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대상국으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5%에 이르며 최대 무역흑자 대상국인데, 한·중 FTA 체결로 양국간 무역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며, 2013년 기준⁶⁾ 4.7조 달러의 거대 시장을 개척하는 기회가 된다. 산업통상자원부(2014)의 자료에 따르면, 한·중 FTA 체결을 통해 연간 대중 수출의 87억 불에 해당하는 물품의 관세가 발효 즉시 철폐되며, 대중 수출 458억 불에 해당하는 물품은 발효 10년후 관세가 모두 철폐됨에 따라, 중소기업을 포함한 우리 기업들의 대중 수출 활로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기존 가공무역 중심의 대중 수출구조가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고부가가치 최종 소비재 위주로 바뀌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FTA 체결을 계기로 건설, 유통, 엔터테인먼트 등 유망 서비스 시장에서 양허를 확보하고, 금융, 통신 분야 규범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안정적인 제도 틀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급속하게 성장하는 중국 내수시장을 대만, 동남아 경쟁국들보다 나은 조건으로 공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향후 중국의 고급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을 선점하여 2015년까지 대중 교역규모 3,000억 불 달성은 물론 우리나라의 1인당 GDP 3만 불 시대를 앞당기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우리나라의 주요 농수축산물에 대한 국내적 우려를 최대한 반영하여 대중 수입 농수

6)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중국의 소비시장 규모는 2015년 5.7조 달러로 증가하고, 2020년에는 9.9조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축산물 중 60%(수입액 기준)를 관세철폐(일정기간후 무관세)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그 중 절반에 해당하는 30%(수입액 기준)는 어떠한 추가적인 개방 의무로부터 보호되는 ‘양허제외’ 지위를 획득하여 최대한 보호하였다.⁷⁾ 특히 국내적으로 우려가 컸던 쌀을 비롯하여 주요 농수축산물(고추, 마늘, 양파, 사과, 감귤, 배, 조기, 갈치, 쇠고기, 돼지고기 등) 대부분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 중 농수축산물 관세철폐율을 비교하면, 한-미 FTA(품목수 기준 98.3%/ 수입액 기준 92.5%), 한-호주 FTA(90.7%/ 98.4%), 한-아세안 FTA(62.8%/ 56.2%)인 반면, 한-중 FTA는 (품목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이다.

셋째, 중국내 각종 비관세장벽, 기술적 무역장벽(TBT) 및 규제조치 그리고 기업의 실질적인 애로사항 해소에 역점을 두어 우리 수출기업 및 현지 진출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또한 중국 중앙정부 및 성·시 등 지방정부가 비관세조치 시행 전 충분한 유예기간을 확보하여 관련 규정 제·개정시 우리 기업의 법률·규정·제도적 대응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양국 정부가 각종 비관세조치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비관세장벽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적인 방안 마련에도 노력하였다.

넷째, 한·중 FTA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글로벌 3대 경제권(미국, EU, 중국) 모두와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여 명실상부한 FTA 허브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되었다.⁸⁾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는 동시에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제 무대에서 우리나라 경제력에 걸맞는 위상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중국과의 FTA 체결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 영토도 60.9%(세계 5위)에서 73.2%(세계 3위)로 도약하게 되었으며⁹⁾, 우리나라 전체 교역 중에서 FTA 체결국과의 교역 비중도 62.4%(2013년 기준)에 이르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FTA 허브국가로 도약하고 FTA 네트워크가 완성됨에 따라 기체결한 한-EU, 한-미 FTA 활용을 희망하는 중국 기업들의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이며, 중국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 기업들의 대한 투자 또한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어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다섯째, 한·중 FTA 타결은 한·중 관계 심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적인 발전 및 한반도의 안보 리스크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현재 한국의 최대 교역대상국, 최대 인적·물적 교류 대상국¹⁰⁾, 최다 투자 대상국으로서, 금번

7) 우리나라가 기체결한 FTA에서 농수축산물 수입액 기준 양허제외율은 한-미 FTA 0.9%, 한-EU FTA 0.2%, 한-캐나다 FTA 3.4%인데 반해, 한·중 FTA에서의 농수축산물 수입액 기준 양허제외 30%는 유례없이 높은 보호 수준이다.

8) 미국, EU, 중국과 모두 FTA를 체결한 국가는 한국 이외에 칠레, 페루가 있다.

9) 각국의 경제영토는 칠레 (85.1%), 페루 (78.0%), 멕시코 (63.6%), 코스타리카 (63.5%) 순이다.

10) 한·중간에는 2013년 기준 800만명 이상이 상호 방문하고, 매주 800 여편의 항공편이 운항하는 등 인적·물적 교류가

FTA를 기반으로 한 양국간 인적·물적 교류가 더욱 확대되고,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중 FTA는 한중일 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지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등 아시아-태평양 역내 경제협력 및 동북아 지역의 통합 활성화 움직임 속에서 우리나라가 핵심축(linchpin)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3. 한·중 FTA의 협상 결과

한·중 FTA 협정문은 상품관련(6개 : 상품,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SPS, TBT), 서비스·투자(4개 : 서비스, 통신, 금융, 자연인의 이동, 투자), 규범·협력(6개 : 지적권, 경쟁, 투명성, 환경, 전자상거래, 경제협력), 총칙(5개) 등 총 22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어 무역 관련 제반 분야를 총 망라하는 ‘포괄적인 FTA’로 평가할 수 있다. 참고로 한·미 FTA는 24개 챕터, 한·EU FTA는 15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한·중 FTA는 한국의 입장에서 미국과 EU와의 FTA에 팔목할 만하고, 중국 입장에서도 중·뉴질랜드 FTA(18개 챕터)와 중·스위스 FTA(16개 챕터)와 비교하여 상당히 포괄적인 FTA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한·중 FTA에서는 중국의 기체결 FTA 중 최초로 통신, 금융, 전자상거래 분야를 독립 챕터로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표 6>에 나타난 한·중 FTA의 공산품 분야 양허안을 살펴보자면, 중국은 상품분야 품목수 기준 90.7%, 수입액 기준 85%를, 한국은 품목수 기준 92.1%, 수입액 기준 91.2%를 20년 안에 관세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중국은 품목수 20%, 수입액 44%를 발효 즉시 관세 철폐하고, 품목수 72%, 수입액 66%를 발효 후 10년 내 단계적으로 철폐하게 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품목수 59%, 수입액 54%를 발효 즉시 관세 철폐하고, 품목수 90%, 수입액 80%를 발효 후 10년 내 단계적으로 철폐하게 된다. 한·중 FTA는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방식이어서 발효일에 1년차 관세 인하가 적용되고 해가 바뀌는 시점에 2년차 인하가 단행된다. 그러나 한·중 FTA의 핵심이 되는 상품분야에서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공산품은 한국 6,108개, 중국 1,649개인데도 불구하고, FTA협상 타결시에서는 즉시 철폐의 구체적 품목은 한국 6개, 중국 3개 정도만 발표되었다.¹¹⁾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1)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관세 양허목록에 대한 가서명이 이뤄진 이후인 2015년 초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표 6> 한·중 FTA 상품분야 양허 내역

품목군		한국측		중국측	
		품목 수	수입액	품목 수	수입액
일반 품목	즉시	6,108(50%)	418.5억불(52%)	1,649(20%)	733.7억불(44%)
	(유관세)	4,125(34%)	80.4억불(10%)	958(12%)	87.1억불(5%)
	5년내	1,433(12%)	31억불 (4%)	1,679(20.5%)	58.3억불(3.5%)
	10년내	2,149(18%)	173.3억불(21%)	2,518(31%)	312.5억불(19%)
	소계	9,690(79%)	622.8억불(77%)	5,846(71%)	1,104.5억불(66%)
민감 품목	15년내	1,106(9%)	79.5억불(10%)	1,108(13.5%)	219.2억불(13%)
	20년내	476(4%)	34.1억불(4%)	474(6%)	93.75억불(5.6%)
	소계	1,582(13%)	113.6억불(14%)	1,582(19%)	312.9억불(19%)
초민감 품목	양허제외	852(7%)	42.9억불(5%)	637(8%)	149.9억불(9%)
	부분감축	87(0.7%)	22.8억불(3%)	129(1.6%)	100.1억불(6%)
	TRQ	21(0.2%)	5.7억불(0.7%)	-	-
	소계	960(8%)	71.3억불(9%)	766(9%)	250.1억불(15%)
합계		12,232(100%)	807.7억불(100%)	8,194(100%)	1,667.5억불(100%)
자유화율		11,272(92%)	736.4억불(91%)	7,428(91%)	1,417.4억불(85%)

<표 7> 한·중 FTA 상품 품목별 양허 내역

구분		한국측	중국측
일반 품목	즉시 철폐	원유, 나프타, 음향기기, 반도체 제조장비, 의약품 등 6,108개, 418.5억달러	제트유, L형강, 스텐레스열연강판(3mm미만) 등 1,649개, 733.7억달러
	5년 내 철폐	제트유, 플라스틱 제품, 금속절삭기계, 의료기기 등 1,433개, 31억달러	항공기 부품, 유선통신기기 부품, 반도체 제조장비 등 1,679개, 58.3억달러
	10년 내 철폐	차체 부분품, 냉장고, 세탁기, 화장품, LCD 패널 등 2,149개, 173.3억달러	에틸렌, 프로필렌, 충격흡수장치, LCD패널, 냉연강판(0.5-1mm), 도금강판(클래드), 냉장고, 에어컨, 밥솥, 믹서, 여성 코트 및 자켓, 유아복, 헤어핀, 기타 운동기구 등 2,518개, 312.5억달러
민감 품목	15년 내 철폐	휘발유, 타이어 등 1,106개, 79.5억달러	나프타, 아스팔트, 윤활기유, 프레스 금형기계, TV카메라 부품, 안경렌즈 등 1,108개, 219.2억달러
	20년 내 철폐	축전기, 기어박스, 편직제 의류 등 476개, 34.1억달러	ABS수지, 도료, 차량용 축전지, 브레이크, 가정용 정수기, 콘택트렌즈 등 474개, 93.75달러
초민감 품목	부분 감축	안전유리, 알루미늄박, 면직물, 신발부분품 등 87개, 22.8억달러	리튬이온 축전지, 자동기어 변속장치, 차체 부분품, 선박용 엔진, 음향기기 부품, 스킨케어 화장품, 샴푸, 런스 등 129개, 100.1억달러
	양허 제외	초산에틸, 판유리, 자동차, 면사, 모사, 편직의류, 베어링 등 852개, 42.9억달러	자동차, 기어박스, 핸들, 클러치, 냉연강판, 파라자일렌, 텔레프탈산, 에틸렌글리콜, 등 637개, 149.9억달러

특히 우리 정부는 영세 중소기업 등 민감 분야에 대한 보호와 함께, 중국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주력 제품 및 유망 수출 품목의 시장접근 개선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중국의 전체 품목 90%(수입액 85%)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됨에 따라, 중국 내 주요 경쟁국인 일본, 대만, 미국, 독일 등에 비해 유리한 경쟁 조건을 확보하게 되었다. 철강(냉연·열연·도금강판 등), 석유화학(프로필렌·에틸렌 등) 등 일부 주력 소재 제품에 더하여, 고급 소형 생활가전(밥솥·믹서 등), 패션(의류·악세서리 등), 영유아용품, 스포츠·레저용품, 건강·웰빙제품(의료기기 등) 등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중소기업 제품들이 대중특혜 관세로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여, 급성장하는 중국 내수 소비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영세 제조업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양허제외 및 관세 부분감축, 관세 장기철폐 등 다양한 예외수단을 활용하여 기체결 FTA에 비해 광범위한 보호 장치를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섬유, 수공구, 베어링 등 영세 중소기업의 품목 및 합판, 제재목 등 목재류에 대해 양허제외, 관세 부분감축 등의 보호 장치를 활용하여 시장개방 충격을 최소화하였다. 한편 자동차의 경우 중국측의 개방 불가 입장과 우리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업체들의 현지화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국 자동차시장 모두를 시장개방에서 제외하였다.

참고로 한·중 FTA 농산물 양허안을 살펴보면, 전체 농산물(1,611개) 중 초민감품목은 581개(36.1%), 민감품목은 441개(27.4%), 일반품목은 589개(36.6%)로 합의하였다. 민감품목과 초민감품목 비중이 63.4%(1,022개)로 기체결 FTA(미국 12.2%; EU 14.5%; 캐나다 18.5%; 칠레 29.7%; 호주 38.5%)를 상회하여 한·중 FTA로부터 국내 농업의 보호에 최선을 다 하였다. 초민감품목 581개중 548개(94.3%)는 양허제외, 7개(1.2%)는 관세할당(TRQ) 적용, 26개(4.5%)는 부분감축으로 합의하였다. 국내 생산이 있는 대부분의 품목은 양허 제외하였고¹²⁾, 대중 수입 의존도가 높은 대두, 참깨, 팥, 맥아 등 품목은 저율 관세할당(TRQ)을 통해 국내산업 보호 및 수급 안정을 도모하였으며, 대중 수입이 많은 김치, 혼합조미료, 조제 땅콩, 들깨, 당면, 조제 팥, 전분용 토란, 귀리 등 민감품목은 부분 감축으로 합의하여 개방을 최소화하였다. 민감품목 중 레몬, 마가린 등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품목은 관세 철폐기간을 장기화하여 수입 급증 가능성에 대비하였고, 한약재, 기타 과실건과(조제), 기타 과실(잼·제리)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를 위해 20년 비선형 철폐를 적용하였다.

12) 한·미 FTA에서 1.0%(16개), 한·EU FTA에서 2.8%(41개), 한·호주 FTA에서 10.5%(158개), 한·캐나다 FTA에서 14.1%(211개)에 비하면 한·중 FTA의 농산물 양허제외(즉 보호수준)은 매우 높다고 하겠다.

〈표 8〉 한·중 FTA의 한국측 농수산물 양허안

품목군		주요 품목
협정 제외		(16개, 0.8억불) 쌀
초민감 품목	양허 제외	(596개, 9.9억불) 양념채소(고추, 마늘, 양파, 생강), 발작물(배추, 당근, 무, 오이, 가지), 인삼류, 과일(사과, 배, 포도, 감귤, 감, 딸기, 수박, 복숭아), 견과류(밤, 호두, 잣, 대추, 은행), 가공식품(간장, 된장, 고추장, 메주, 대두유, 설탕, 전분), 조기(냉동), 갈치(냉동) 등 주요 농수산물 품목
	TRQ	(21개, 5.7억불) 대두, 참깨, 팥, 고구마전분, 기타사료, 맥아, 낙지(냉동), 아귀(냉동) 등 대중 수입 불가피 품목
	부분 감축	(35개, 4.9억불) 김치, 기타 소스, 혼합조미료, 조제망콩, 들깨, 조제 팥, 꽃게(냉동), 복어(냉동) 등 국내 산업 보호 필요 품목
민감 품목	20년 내 철폐	(870개, 7.99억불) 산동물(말, 양), 육고기(거위, 기니아새), 가공식품(토마토케첩, 카레, 마가린, 아이스크림), 소주, 맥주, 연육, 새우살(냉동) 등 장기간 보호 필요 품목
일반 품목	10년 내 철폐	(702개, 6.2억불) 박류, 수수, 사료, 모류, 쿠키 및 크래커, 라면, 치어, 연어, 패각 등 저율관세 품목, 수입의존 품목 등

〈표 8〉에 나타난 한국측 농수산물 양허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쌀 및 쌀 관련 제품(16개 세번)은 협정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축산물 중 소·돼지·닭 등 국내 주요 축산물의 핵심 품목, 우유·계란 등 주요 품목은 모두 양허 제외하였다. 그리고 과실류 중 사과·배·포도·감귤·감·딸기·수박·복숭아 등 국내 주요 생산·소비 품목은 모두 양허 제외하였으며, 채소·특작류 중 고추·마늘·양파·생강 등 양념채소, 배추·당근·무·오이·가지 등 주요 발작물, 인삼류 등도 역시 양허 제외하였다. 대중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 중 대두, 참깨, 팥 등은 관세할당을 통해 국내 산업보호 및 수급 안정을 꾀하였으며, 양허제외 품목에 비해 국내적으로 상대적 민감성이 덜한 품목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제한된 범위의 관세 부분감축을 통해 시장개방으로 인한 충격 완화를 도모하였다.

IV. 한·중 FTA의 지역 주요 산업별 영향

대구·경북은 수출·입에서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중국의존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2014년 기준 지역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중국 비중을 보면 대구는 수출 22.1%, 수입 42.9%, 경북은 수출 27.9%, 수입 17.6%로 대구·경북 모두 높다. 지역은 중국에 주로 중간재를 수출하고 제품생산 원료로 쓰이는 원자재를 주로 수입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한·중 FTA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면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향상되고, 수입제품의 가격도 하락하여 품목에 따라 효과는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무역확대가 예상된다.

한·중 FTA는 13억 시장 중국시장 선점이라는 측면에서 한국 경제 전체뿐만 아니라 대구·경북 지역경제에 기회임에 분명하다. 현재 품목별 관세철폐 일정이 미공개 상태이므로 구체적인 이해득실을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러나 지역산업이 받게 될 수혜를 지속적으로 누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 상황에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찾아보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지역과 중국 간 교역구조, 지역의 대중 경쟁력, 관세장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한·중 FTA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대 주력산업인 섬유, 기계, 전자·전기, 철강·금속 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지역의 대중 수출입 현황 및 경쟁력 분석

1) 주요 산업별 대중 수출입 현황

대구·경북지역 주요 품목의 수출은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 상대국 경제 여건이나 경기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중국이며, 2014년 기준 지역 주력품목 대중 수출의존도를 보면, 대구는 기계가 47.9%, 전자·전기 22.9%로 매우 높고, 경북은 전자·전기가 68.6%를 차지하고 있다. 수입의존도는 대구의 경우 철강·금속이 20.8%로 가장 높고, 경북은 철강·금속 45.0%로 나타나고 있다. 수출 증가율을 보면, 대구의 경우 섬유 수출은 2010년 8.9%, 2014년 -11.7%로 크게 줄어들었고, 철강·금속과 기계도 크게 감소되고 있다. 경북은 섬유와 철강·금속이 감소하고 있고, 전자·전기 수출도 크게 감소하고 있다. 반면, 수입증감률은 대구는 섬유, 철강·금속, 기계 모두 증가하고 있고, 경북도 섬유와 철강·금속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이 대구·경북은 주력 품목 상당수가 중국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중국의 시장 여건 변화와 경제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한·중 FTA 체결에 따른 관세인하·철폐까지 이루어진다면 지역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표 9〉 지역의 대중 수출입 현황

(단위: %)

구 분	수출					수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0	2011	2012	2013	2014	
대구	섬유	13.5	12.5	10.7	9.8	8.2	17.9	16.1	15.1	14.8	15.1
		8.9	5.5	-11.7	-1.8	-11.7	25.0	21.1	-8.6	3.6	9.4
	철강금속	6.5	7.1	7.8	7.1	7.0	19.1	21.8	18.3	20.1	20.8
		31.5	24.9	11.8	-1.3	4.5	105.1	52.7	-17.3	15.6	11.6
	기계	41.6	42.7	42.4	45.8	47.9	13.4	13.0	13.5	13.5	14.1
		75.5	17.8	1.5	15.6	11.1	34.8	30.5	1.8	5.4	11.7
전자전기	25.1	24.5	24.6	21.8	22.9	18.8	17.4	17.7	19.7	17.1	
	18.5	12.0	2.5	-4.7	11.2	15.8	24.1	-0.5	17.9	-6.8	
경북	섬유	2.4	2.0	1.7	1.7	1.7	4.9	5.0	4.6	4.7	5.8
		6.8	1.6	-3.7	-2.0	0.4	34.4	42.1	-14.7	2.0	19.8
	철강	21.7	20.2	13.3	12.8	14.4	25.0	29.7	24.8	25.4	45.0
		5.8	17.7	-27.8	-1.8	11.5	66.3	61.8	-22.2	2.2	72.9
	기계	6.5	6.7	6.8	7.5	6.8	6.9	6.3	7.8	7.9	5.8
		18.3	30.2	11.1	13.6	-10.2	-8.4	24.0	16.4	0.8	-28.4
전자전기	63.5	64.7	71.3	69.5	68.6	26.2	24.8	27.6	31.5	15.8	
	-1.9	28.8	20.6	-0.2	-1.8	-10.1	29.2	4.2	13.4	-51.1	

주 : 상단은 대중 전체 수출/수입 대비 비중, 하단은 수출/수입 증감률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2) 지역 산업의 대중 경쟁력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대구·경북 지역의 대중 수출·입 의존도는 매우 높다. 여기에서는 무역특화지수(Trade Specification Index: TSI)를 사용하여 지역과 중국 간의 경쟁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TSI는 어떤 한 제품의 총수출액과 총수입액, 전체 무역액을 이용해 해당 제품의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다.

$$TSI_i = (EX_i - IM_i) / (EX_i + IM_i)$$

여기에서 EX_i 와 IM_i 는 각각 해당국(지역)에 대한 i 품목의 총수출액과 총수입액을 나타낸다. TSI 는 1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지고, TSI 가 0보다 크면 수출특화, 0보다 작으면 수입특화, 0의 값을 가지면 비교우위중립을 나타내며, 1이면 완전 수출특화상태, -1이면 완전 수입특화 상태를 나타낸다. 즉, TSI 가 0 이상 1 이하이면 그 제품이나 산업이 무역흑자를 기록해 국제경쟁력이 강하다는 것으로 1에 가까울수록 수출특화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1에 가까울수록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하거나 수출을 하지 못해 수입특화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표 10〉 지역 주력산업의 무역특화지수 추이

구 분	대구			경북		
	2005	2010	2014	2005	2010	2014
섬유						
섬유원료	0.06	0.05	0.48	0.99	0.86	0.89
섬유사	-0.72	-0.86	-0.89	0.35	0.31	-0.07
직물	0.30	0.27	0.10	0.40	0.55	0.26
섬유제품	-0.86	-0.85	-0.86	-0.80	-0.83	-0.79
철강금속						
철강제품	-0.73	-0.76	-0.85	0.54	0.61	0.19
비철금속제품	-0.74	-0.21	-0.29	0.49	0.49	0.54
기타 철강금속제품	-0.14	0.36	0.58	0.58	0.65	0.80
기계						
기초산업기계	0.87	0.80	0.66	0.97	0.80	0.84
산업기계	0.72	0.65	0.43	0.84	0.49	0.44
정밀기계	-0.87	0.78	0.86	0.89	0.83	0.97
수송기계	0.27	0.52	0.67	0.83	0.53	0.76
기계요소공구 및 금형	0.31	0.15	0.26	0.67	0.48	0.53
기타 기계류	0.96	0.95	0.91	0.90	0.66	0.81
전자전기						
산업용전자제품	0.80	0.76	0.74	0.50	0.94	0.94
가정용전자제품	0.65	0.37	0.43	0.80	0.69	0.47
전자부품	0.28	0.16	-0.16	0.57	0.86	0.94
중전기	0.03	-0.47	0.10	-0.30	-0.22	0.92
전선	0.01	-0.13	-0.24	0.04	-0.08	-0.67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분석결과를 주력산업별로 보면, 먼저 대구는 섬유업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특히 섬유사는 2005년 TSI가 -0.72였으나 2014년 -0.89로 더 낮아졌고, 섬유제품은 2005년 -0.86, 2010년 -0.85, 2014년 -0.86으로 지속적으로 수입특화 상태를 보이고 있다. 기계는 2014년 기준 기초산업기계 0.66, 정밀기계 0.86, 수송기계 0.67, 기타 기계류 0.91 등 대부분 품목이 0.5 이상으로 수출특화 상태이며, 전자·전기는 2014년 기준 산업용전자제품 0.43, 중전기기 0.10, 전자부품 -0.16, 전선 -0.24로 모두 산업내무역 상태이다.

경북은 섬유는 섬유원료가 2014년 0.89로 수출특화인 것을 제외하면 모두 경쟁력이 낮아 섬유사와 섬유제품은 수입특화상태이다. 철강의 경우 철강제품은 2005년 0.54에서 2014년 0.19로 경쟁력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기계는 기초산업기계는 2005년 0.97에서 2014년 0.84로 다소 낮아졌고, 산업기계는 2005년 0.84에서 2014년 0.44로 산업내무역이 활발해지고 있고, 수송기계는 수출특화 상태이나 2005년 대비 2014년 경쟁력이 다소 낮아졌다. 전자전기는 산업용전자제품이 2005년 0.50에서 2014년 0.94로 크게 높아졌고, 전자부품도 2005년 0.57에서 2014년 0.94로 높아졌다. 중전기기는 2005년 -0.30, 2010년 -0.22, 2014년 0.92로 경쟁력이 크게 높아졌다. 한편, 가정용전자제품은 TSI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 한·중 관세를 비교

중국은 WTO에 가입하면서 광범위한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를 주 내용으로 하는 양허표를 제출하였다. 중국은 계획경제체제하에 모든 무역을 국가가 독점적으로 행해왔으나, 현재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무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

〈표 11〉 중국과 한국의 관세율 구조 비교

(단위 : %)

구분	중 국				한국 (2006)	구 성(2006)	
	2005	2006.1	2006.7	2007		중 국	한 국
무관세 품목	687	687	687	687	1,575	9.1	14.0
5% 미만	688	688	688	688	630	9.1	5.6
5% 이상 10% 미만	2,596	2,610	2,610	2,613	7,108	34.6	63.1
10% 이상 15% 미만	2,100	2,106	2,108	2,105	971	27.9	8.6
15% 이상 20% 미만	690	674	672	672	101	8.9	0.9
20% 이상 30% 미만	593	620	620	620	463	8.2	4.1
30% 이상 50% 미만	161	131	131	131	264	1.7	2.3
50% 이상	35	34	34	34	149	0.5	1.3
합 계	7,550	7,550	7,550	7,550	11,261	100.0	100.0

자료 : 양평섭 외, 2009

<표 11>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세율별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우리나라의 관세율은 5~10%에 집중되어 있고 그 비중은 63.1%에 달한다. 무관세 품목 14.0%, 10~15% 품목 8.6%, 5% 미만은 5.6%이다. 반면, 중국은 5~10%가 34.6%, 10~15%가 27.9%로 관세율이 5~15%에 집중되어 있어 우리나라보다 관세율이 높다. 무관세 품목을 포함한 5% 미만의 저관세 품목은 우리나라가 19.6%로 중국의 18.2% 보다 약간 높으나, 무관세 품목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 14.0%, 중국 9.1%로 우리나라의 비중이 훨씬 높다. 30% 이상의 고관세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중국 2.2%로 우리나라(3.3%)에 비해 낮으나, 15~20%, 20~30%는 각각 8.9%, 8.2%로 중국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12> 중국과 한국의 제조업 업종별 관세율 비교

(단위 : %)

업종	중국				한국		
	단순평균	가중평균	대한국 가중평균	대한국 실질관세	단순평균	가중평균	대중 가중평균
전 산업	9.7	4.62	4.54	2.7	11.9	6.06	7.29
섬유 및 의류	11.70	9.12	9.55	1.63	9.96	10.49	11.19
철강	7.29	5.48	6.05	2.91	2.38	1.15	1.12
기계	8.32	5.73	5.35	1.84	6.19	5.69	6.99
전기전자	8.80	1.73	1.16	2.76	5.38	2.12	2.76
자동차부품	10.2	10.0	10.1	6.8	8.0	8.0	8.0

자료 : 양평섭 외, 2009

양국 관세율을 주요 업종별로 보면, 먼저 섬유는 단순평균관세율 기준 중국(11.70%)이 한국(9.96%)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가중평균은 한국이 10.49%로 중국의 9.12%에 비해 높다. 철강은 단순평균 중국 7.29%, 한국 2.38%로 중국은 한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기계는 양국 모두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중국은 단순평균 8.32%, 한국은 6.19%로 중국이 높으며, 가중평균으로는 중국과 한국이 각각 5.73%와 5.69%로 비슷한 수준이다. 전기전자는 중국 단순평균 8.80%로 한국의 5.38%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중국의 한국에 대한국 가중평균 관세율은 1.16%로 대중 가중 2.76%에 비해 낮다. 품목별로는 양국 모두 컴퓨터와 통신기기, 전자부품 등 IT 제품에 대해서는 대체로 무관세 또는 저관세이나, 가전기기는 고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3. 한·중 FTA의 지역 산업별 영향

1) 섬유 산업

대구는 대중 섬유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수입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대중 경쟁력 측면에서 보아도 대구는 대부분 수입특화로 경쟁력이 낮다. 경북도 섬유 수출보다 수입 증가율이 더 높다. 경쟁력 측면에서도 섬유원료를 제외하면 섬유사, 직물, 섬유제품 등 모든 품목의 TSI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관세율 측면에서 보면, 양국 모두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어 FTA 발효 시 양국 간 교역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 FTA 협상에서 섬유는 편직제 의류가 민감품목으로 분류되어 관세가 20년 장기 철폐되며, 면직물과 면사, 모사 등은 초민감품목에 포함되어 부분감축 또는 양허제외 되었다. 따라서 당초 예상되었던 것보다 섬유산업에 미칠 피해는 다소 적을 것으로 예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역의 중국 수입비중이 높고 저가 섬유유입 더욱 확대에 따른 지역섬유산업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후 협상 세부내용에 따라 피해·수혜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나 관세의 단계적 철폐에 따른 중국과의 경쟁을 불가피할 것이다. 중국의 섬유제품 자급율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 내 섬유 수입 수요는 점차 감소하게 될 것이며, 8~10% 내외에 이르는 섬유제품의 관세가 FTA 발효로 철폐되면 중국 섬유는 가격경쟁력을 더욱 확보하게 되고, 중국산 범용섬유제품은 지역으로 더욱 유입될 것이다.

다만, 지역은 2000년대 후반 들어 인조섬유, 인조섬유장섬유사, 편직물 등의 수출이 늘면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품목은 2000년대 후반 들어 초경량섬유, 산업용섬유와 같은 고부가가치제품 개발 등으로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산업용섬유와 고부가가치 특수섬유 등은 중국에 비해 국내 제품이 기술력 우위에 있어 FTA가 발효되어도 수출 경쟁력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부가가치섬유 단가는 범용섬유에 비해 5~20배 정도 높으며, 최근 그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FTA에 따른 섬유산업의 피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 기계 및 자동차 산업

경북의 경우 기계는 대중 전체 수출 대비 비중이 2010년 6.5%, 2012년 6.8%, 2014년 6.8%로 다소 낮은 수준이나, 대구의 경우 대중 수출비중이 2014년 47.9%로 매우 높다. 이중 자동차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기계의 단순평균관세율은 중국 8.32%, 한국은 6.19%로 양국 모두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어 FTA로 관세인하가 이루어질 경우 양국 간 교역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부품의 경우, 단순평균으로 중국은 10.2%, 한국은 8.0%로 양국 모두 높은 관세율을 보이고 있고, 양국의 상대국에 대한 관세보호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관세율인 對한국 가중관세율은 10.1%, 대중 가중관세율은 8.0%로 중장기적으로는 교역확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자동차부품은 양허대상이 제한적이고, 현지생산 비중이 높아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기어박스, 핸들, 클러치 등이 양허제외에 포함되어 있고, 자동차 기업변속장치와 차체부분품은 부분감축에 포함되어 있어 FTA 효과는 사실상 크지 않을 전망이다. 자동차부품은 중국산 부품의 품질수준 향상 및 낮은 생산비에 따른 가격경쟁력으로 향후 중국산 부품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양국 간 기술격차는 급속히 좁혀지고 있으며, 중국은 해외기업인수를 통한 선진기술 확보로 자동차부품 경쟁력도 크게 강화되고 있다. FTA가 발효되면 자동차부품 등에서 중장기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중국 업체와의 경쟁은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 전자·전기 산업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은 전자·전기 제품이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으며, 주력 품목 상당수가 대중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관세율 측면에서 중국의 단순평균관세율은 8.80%로 5.38%인 우리나라에 비해 높으나, 중국의 對한국 가중관세율은 1.16%로 우리나라의 대중 가중관세율 2.76% 보다 낮은 수준이다. 품목별로는 양국 모두 컴퓨터와 반도체 등 IT 제품에 대해서는 무관세인 반면,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FTA로 가전제품의 관세인하가 이루어진다면 지역의 대중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국의 대중 수출이 대부분 중국 내 가공무역을 위해 수출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관세인하에 따른 전체적인 대중 수출 증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양허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가격경쟁력이 높아 국내 수입관세는 저관세 혹은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FTA에 의한 수입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전기제품은 기술 변화속도가 매우 빨라 글로벌 경기변화 등에 취약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역이 특정부문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능력이 취약하면 특정제품 위주의 생산·수출구조가 고착화되어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전자부품은 제품 종류가 다양하고 기술수준도 각각 다르며, 국가별 특화 상품의 차이,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부품업체들의 수출 및 해외진출 등으로 향후에도 산업내무역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산업용전자제품은 부가가치가 높고 제품의 종류도 다양하며, 대량생산에 따른 규모의 경제로 향후에도 활발한 산업내무역이 예상된다. 따라서 국가 간 경제통합의 정도가 높고 무역장벽이 낮을수록, 지리적 근접성이 높아 운송비용이 낮을수록 산업내무역은 촉진된다. 한·중 FTA는 산업내무역의 급속한 확산 계기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지역 전자·전기 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가능성 높다.

4) 철강·금속 산업

지역의 철강·금속 산업은 2000년대 들어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지역 내 수출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특히 주력품목인 철강관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조강생산능력 확충으로 2006년 이후 철강관을 중심으로 증가세는 크게 둔화되었다.

우리나라의 수입관세율은 대부분 무관세이나 중국은 우리의 대중 수출 주력 철강제품에 3~2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FTA에 따른 중국측 수입관세 철폐로 일본, 러시아, 대만 등 경쟁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제고되어 대중 수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주요 수출품목인 냉연 등 일부 고급제품이 양허제외에 포함되어 있어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 수출제품과 중국제품 간 가격격차로 인해 관세인하 효과만으로는 수출증대 효과가 적게 나타날 수도 있다. 다만, 철강·금속의 수요산업인 자동차, 가전, 기계 등에서 대중 수출 증대가 이루어질 경우 철강·금속의 수요 및 생산이 증대되는 간접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철강·금속 산업 자체의 투자 창출보다는 수요산업 중심의 투자효과 발생으로 철강·금속의 수요 및 생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자동차가 양허대상 제외로 되어있고, 가전의 경우 현지생산 비중이 높아 간접적인 철강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치가 그리 높은 상황은 아니다. 더욱이 세계 철강회사들의 증설 경쟁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철강산업의 구조조정 압력을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조정 압력은 더욱 치열한 수출시장 확대 경쟁을 유발하고 각국 수입시장의 불안정성을 심화시켜 FTA 효과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V. 요약과 결론

본 논문은 한·중 FTA가 대구·경북 지역의 주요 핵심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연구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대구·경북 지역의 대중 교역 현황, 한중간 관세를 비교 및 지역 핵심산업의 무역특화지수, 그리고 한·중 FTA 협상결과를 분석함으로써 한·중 FTA의 지역 산업별 파급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중 양국은 지난 11월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 선언 이후, 기술 협의 및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2015년 2월 25일 한·중 FTA협정에 가서명을 완료하였다. 우리측은 품목수 79%(9,690개), 수입액 77%(623억불)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최장 10년내 철폐, 그리고 품목수 기준 91%(7,428개), 수입액 기준 85%(1,417억불)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최장 20년내 중국 시장의 수입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분야에서 미래 유망품목 위주로 중국시장 개방에 집중한 반면 기존 주력 품목은 효과적인 경쟁력 관리에 역점을 두었으며, 농수산물 분야는 우리 시장을 보호하면서도, 중국 내수시장 수출 기회를 확보하였다.

대구·경북 지역의 주요 핵심 산업에서 한·중 FTA의 파급효과는 다음과 같다. 총체적으로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최대 교역상대국인 중국과의 FTA가 정식 발효되면 발효 시점부터 관세가 인하되어 수출 여건이 더욱 개선될 것이므로 관세철폐로 인한 수출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한·중 FTA의 대구·경북 지역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주력 산업별로 다른 차이를 보일 것이다.

첫째, 대구지역 주력산업인 섬유는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한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 부분감축 또는 양허제외로 결정이 나면서 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 화섬 직물과 편직물 등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서 중국 측의 품목 개방으로 관세절감 효과를 누리게 된 반면 우려했던 화섬사와 면사 등 원사 분야에 대한 보호책이 마련되면서 기능성 섬유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대구 지역의 내수 위주 중소 섬유업체들은 중국의 저가 공세에 맞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제조업체가 대부분 영세한 화학섬유·직물과 포대나 가구·욕실 자재용품 등 생활용품 분야의 중소기업체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체는 한·중 FTA로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 정부가 세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의 기계산업은 2013년 약 56억불 규모의 대중 무역흑자를 기록한 분야로서, 중국은 자국 내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기계 분야를 개방하였고, 우리는 중소기업 제품인 기계 요소 및 전동공구 등을 보호하였다. 특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분야에서 중국은 자국 산

업 보호, 우리는 현지생산 진출 전략을 취함에 따라, 양국 모두 대부분 양허제외 또는 중장기 관세철폐를 합의함에 따라 한·중 FTA가 직접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특히 대구·경북의 주요 산업 중 하나인 자동차부품은 장기 관세철폐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중국과의 FTA로 인한 수혜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전자·전기 산업의 경우 중국은 대형 가전제품, 2차전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등 경쟁력이 열위인 품목을 장기철폐 또는 양허 제외 대상으로 정한 대신 일부 중소형 생활가전(전기밥솥, 세탁기, 냉장고 등) 및 의료기기, 가전 부품 등을 개방한 반면 우리는 전동기·변압기 등 주요 중전기기의 국내 시장을 중장기 관세 철폐로 보호하였다. 그리고 아직은 한국의 경쟁력이 우위지만 중국의 공급 능력이 확대되는 LCD 패널은 양국 모두 FTA 발효 후 9년 차부터 관세를 낮추기 시작해 당장 FTA의 산업별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철강 분야는 중국은 한국 업체들이 중국 현지 공장에서 소재로 활용하는 냉연강판, 스테인레스 열연강판 및 범용제품인 후판 등을 개방한 반면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아연도금강판, 전기강판 등 고부가가치 제품은 개방에서 제외하였다. 우리측은 중소·중견 기업 보호를 위해 페로망간 등 합금철은 장기양허 대상에 포함시키고, 상하수도관으로 사용되는 주철관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만, 철강·금속의 주요산업인 자동차, 가전, 기계 등에서 대중 수출 증대가 이루어질 경우 철강·금속의 수요 및 생산이 증대되는 간접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015년 2월 25일 한·중 FTA 가서명을 계기로 우리 정부는 국회 비준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연내 한·중 FTA 발효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중 FTA 체결로 우리 농수산업 생산이 크게 줄어드는 등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하고 있어 국회 비준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특히 한·중 FTA는 우리나라의 중소 제조업에 상당한 영향과 큰 피해를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한·중 FTA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기존 FTA 지원제도를 중소기업 친화적으로 정비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 및 개발, 소상공인의 규모화 및 글로벌화 강화, 중국이 아직 추격하지 못한 업종의 발굴 및 활용 등이 필요하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연구원에서도 무역조정지원제도(TAA) 강화, 국내 환경 및 규격인증 강화, 정책금융 확대, 사업전환 컨설팅과 자금지원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와 산업계에서는 한·중 FTA 발효이후 FTA의 적극적인 활용에 대비해 지자체, 세관,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등 각종 무역지원기관 내에 한·중 FTA 활용지원팀이나 전담 데스크를 설치하여 대중국 수출시장 개척, 중국내 비관세장벽 해소, 원산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태훈, 2009, 「FTA 및 CEPA가 경북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대구경북연구원.
- 경기개발연구원, 2007, 「한·중 FTA 체결과 경기도의 거시경제 및 산업별 파급효과 분석」, 위탁연구 2007-08.
- 김군수 외, 2012, 「한·중 FTA가 경기도에 미치는 효과 및 대응방안」, 경기개발연구원 정책연구 2012-44.
- 김영귀, 2012a, 「한·중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 한·중 FTA 토론회 자료, KIEP, 2012. 1.31.
- _____, 2012b, 「한·중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 한·중 FTA 공청회 자료. 외교통상부·한국무역협회, 2012. 2.24.
- 김태년, 2012, 「한·중 FTA 자동차업계의 영향 및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 영상DB, <http://csf.kiep.go.kr/>.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한·중 FTA 토론회 발표 자료집」.
- 명진호·정혜선, 2014, 「무역업계가 전망한 한·중 FTA」, IIT Trade Focus, Vol. 13, No. 52,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 박정현, 2012, “한·중 FTA 협상: 현황과 전망”, 『관세와 무역』, 제481호, 2012. 5-6월, 한국관세무역개발원, pp. 15~19.
- 부산발전연구원, 2014, 「한·중 FTA 타결, 부산의 활용방안」, BDI 정책포커스, 제266호, 2014. 11.17, 부산발전연구원.
- 산업통상자원부, 2014, 「한·중 FTA 상세 설명자료」, 2014.11.10
- 산업통상자원부, 2015, 「한·중 FTA 가서명 참고자료」, 2015, 2.25.
- 손수석, 2013, “한·중 FTA 체결이 경북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경제연구, 제31권 제4호, pp. 225~253.
- 송원근·최남석, 2012, 「한·중 FTA 협상, 정교하고 치밀하게 접근해야」,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자료, 2012. 1.26., pp. 1-25.
- 양평섭 외, 2009. 「한·중 교역 특성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여택동·최의현, 2013, “한·중 FTA 체결이 지역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 대구지역 기업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중소연구』, 제36권 4호, pp. 57~84.
- 오동윤, 2012, 「한·중 FTA 전망과 대응방안: 경공업 중심적으로」, 한·중 FTA 공청회 자료, 외교통상부·한국무역협회.

- 외교통상부, 2010, 「한-중 FTA 산학관 공동연구 보고서」.
- 유병규·임규채, 2012, 「한-중 FTA가 경북 농수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대구경북연구원.
- 이상호·김충실, 2012, “한-중 FTA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파급영향 분석”, 『무역학회지』, 제38권 제2호, pp. 98~114.
- 이시영·김대영·전성희, 2012, 「한·중/한·일 FTA 국민인식 조사 및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연구시리즈 12-03.
- 장경호, 2014, 「한-중 FTA 협상 결과에 대해」, 시선집중 GS&J 제186-1호, 2014.11.27., GS&J 인스티튜드.
- 정군우, 2012, 「한-중 FTA가 지역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조사보고서 2012-71, 대구경북연구원.
- 정인교. 2006. 「한·중 FTA의 주요 이슈와 추진전략」. KIEP·한국국제경제학회 정책세미나 자료, 한국국제경제학회.
- 정인교·박지섭·박동준. 2012. 「한·중 FTA의 농업분야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 전남지역 농업을 중심으로」, 한국은행 목포지점.
- 정환우, 2012a, 「한-중 FTA 비관세장벽 쟁점과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 정환우, 2012b, 「한-중 FTA, 지방발전과 지방간 협력에 어떤 영향을 주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내부발표자료, <http://csf.kiep.go.kr/>).
- 최용민, 「한·중간 무역구조의 특징과 FTA 협상시 고려요인」, 국제무역연구원, 2010.
- 최의현·여택동, 2013, “한-중 FTA가 경상북도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경북 200개 기업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동북아경제연구』, 제25권 제2호, pp. 59~89.

ABSTRACT

The Impacts of Korea-China FTA on the Major Industries in Daegu-Gyeongbuk Region

Taek Dong Yeo · Gun Woo Jeong

Recently, Korea had virtually reached an FTA deal with China on November 10, 2014 after the 14 rounds of negotiation during past two and half years. The two countries agreed to the FTA's 22 chapters, including products, services, investment, e-commerce, finance, communication, and other trade issues, but rice and several sensitive agricultural and fisheries products were excluded from the deal. Korea and China will remove their import tariffs on more than 90 percent of all products and more than 85 percent of imports by value within 20 years once the FTA is implemented.

This paper intends to analyze the impacts of Korea-China FTA on the major industries in Daegu-Gyeongbuk region. Considering the statistics on the bilateral trade between China and Daegu-Gyeongbuk region, import tariff rates of the two countries, trade specialization indices of the major industries, and the package of Korea-China FTA deal,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ectoral effects of Korea-China FTA on the four main industries, textiles, electrical-electronics, machinery and auto parts, and steel and iron industries in that region.

Key Words : Free Trade Agreement(FTA), Korea-China FTA, Daegu-Gyeongbuk region, regional industry